

## 애플, 아이폰 통해 아이튠즈에 저장된 음악 전송받을 수 있는 기술 출원

미국 컴퓨터 대기업 애플(Apple)사의 음악 라이브러리인 아이튠즈(iTunes)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이라면 자신의 아이튠즈에 저장되어 있는 음악 전체를 언제 어디서든 듣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특히 8기가 바이트로 용량이 상대적으로 작은 아이폰(iPhone)을 이용해 음악을 듣는 이용자들이 경우 더욱 그러할 것이다.

그러한 소비자들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기술을 최근 애플사가 미 특허상표청(USPTO)에 출원했다. 이번에 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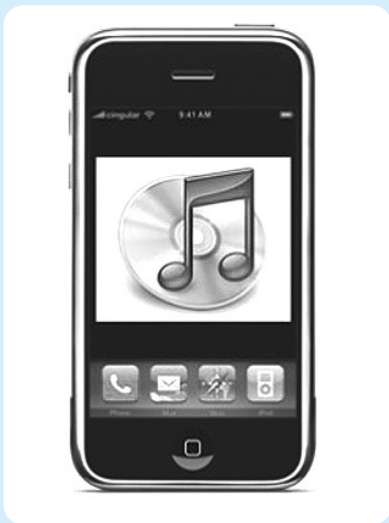
원된 애플사의 새로운 아이폰 관련 소프트웨어는 아이폰 사용자가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곳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집에 있는 컴퓨터에 저장된 아이튠즈 라이브러리에 접속해 음악을 전송받아 들을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한다.

애플사가 동 기술을 상품화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지만, 만일 실현된다면 아이폰이나 아이팟 터치(iPod touch)를 사용하고 있는 유저들은 용량에 따른 음악 선택의 제한이 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애플사로서도 소비자들이 아이폰과 유사한 경쟁사들의 상품과 비교해 아이폰을 구매하고 싶은 이유를 한가지 더 늘리는 셈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

애플사가 이 기술을 실현하는데 있어 장애가 될만한 요인들 중에는 애플사가 아이폰의 보급에 의존하고 있는 캐리어들이 동 서비스를 통해 일정 부분 이익을 얻고자 하거나, 캐리어들 스스로가 유사한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제공하면서 사용자들에게 서비스 이용료를 부과하여 수익을 얻길 원할 때(예를 들어, 노키아의 “킴즈 워드 뮤직” 플랜과 같은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애플이 소비자들에게 동 서비스의 사용료로 매달 일정액을 부과하여 그 수익을 캐리어들과 나누다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일 것이다. 만일 이러한 형태의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캐리어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대역폭의 활동이 요구되는 음악 파일 전송 서비스의 추가를 그다지 반가워 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 동 기술의 실현은 향후 휴대전화 이용자들에게 음원 판매를 계획하고 있던 음악산업계로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애플사의 서비스는 이러한 음악산업계와의 근본적인 평형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음악산업계로서는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현재에도 음악계의 휴대 기기용 서비스 제공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뮤직 엔터테인먼트 대기업인 워너 뮤직 그룹(Warner Music Group)은 이번주에도 휴대전화 벨소리 판매가 기대에 훨씬 못미치고 있다며, 미국 시장에서의 모바일 비즈니스는 약세라고 보고한 바 있다.



[이미지 출처: iphonebuzz.com]

출처 : Silicon Alley Insider